

# ‘맞춤형 보육’ 모호한 합의... 커지는 반발

### 여야, 합의문 다자녀 기준 완화·보육료 보전 싸고 이견

### 복지부 “내달 시행”... 어린이집 단체 “23~24일 휴원”

여야정이 지난 16일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다. 합의문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데다 합의문 내용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합의문이 나온 후 야권은 반발하고 있고 어린이집 단체는 23~24일 ‘휴원 투쟁’을 할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지난 16일 여야가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 ▲맞춤형 보육의 ‘기본 보육료’를 ‘중전’ 지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예정대로 7월1일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다자녀 기준 완화, 보육료 보전 등 여야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수준인데다, 이 역시 7월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검토’하기로 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모두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완화하는 방안인데, 완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따라 야권과 정부여당 사이에 견해차가 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경영에 민감한 맞춤형 보육료 보전 대상도 전체 보육료가 아닌 ‘기본 보육료’로 국한됐다.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나뉜다. 올해 두 보육료 모두 6% 인상돼서 종일반은 0세 기

준 82만5000원(부모보육료 43만원+기본보육료 39만5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맞춤형에 대해 두 종류의 보육료 모두를 80% 가량(부모보육료 34만4000원+기본보육료 31만6000원) 지원할 방침이었는데, 합의문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부모보육료는 그대로 80%로 정하고 기본보육료는 ‘중전’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보전의 수준도 ‘중전’으로 정해 애매하다.

이날 합의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합의문의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그대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권은 한층 더 강경한 방침을 보

이고 있다. 합의문 발표 다음 날인 17일 더민주는 “정부가 마치 여야정이 맞춤형 보육 7월1일 시행에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했으며 국민의당도 7월1일 시행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집 단체들은 예정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간편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는 23~24일 이틀간 계획했던 집단 휴원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여야정의 합의문이 ‘검토’, ‘일부’ 등의 수사를 동원해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집단 휴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뉴스&정보 브리핑

### 전남도 고등어·오징어 FTA 피해 보전 접수

전남도는 오는 8월 16일까지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등 3종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 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을 각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 삼성전자 전남 다문화가족 2억 지원증서 전달

전남도는 20일 도청 행정부지사에서 (주)삼성전자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전남 다문화가족을 위해 2억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주)삼성전자는 올 한 해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강사를 파견해 출산 전후 임신부에게 안전 분만, 산모 건강관리 등 교육과 세탁기·공기정화기 지원 활동 등을 펼쳐 700여 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 광주시 입주 앞둔 아파트 사전 점검 서비스

광주시가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사전 점검 및 감사 서비스를 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일 “입주 예정자, 시공사, 민간전문가, 사업승인 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해 아파트 품질을 확인하는 컨설팅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을 희망하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점검과 컨설팅에는 아파트 하자 여부, 생활 편의와 안전시설 적정 시공여부 등 주택 품질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등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다.

### 경찰·지방직 공무원 응시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경찰이나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연합뉴스

### 전남도 소방공무원 3교대제로 바뀔까

### 오늘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국민안전처는 반대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존폐 여부가 21일 최종 결정된다.

전남도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상정,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방법 등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소방공무원 근무방식을 3교대 근무(당번-비번-비번)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정하는 ‘3교대제(3조 2교대제) 근무원칙’에서 ‘3조 2교대제’를 삭제한 것이지만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3조 2교대제로,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등 9일 주기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방식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종범 의원은 “그간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이 늦어졌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법상 근무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라는 점을 이유로 지방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남도의회는 결정에 따라 이 조례안은 법정 다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전남도의회는 국민안전처가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법상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어린이집연합회원 20여명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중단 및 시행유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전남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 최우수

### 6개 전부문 ‘가’ 등급... 광주문화재단은 1개 부문만 ‘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지역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에서 2개 사업, 6개 전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교류활성화 부문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다.

지역협력형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에 시·도비를 보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통합·창작활성화·교류활성화·지역특성화·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종합 등급에서도 역시 최고평가를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은 교류활성화 부문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배정시 올해 지원받은 15억여 원 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추진되고 있다./윤영기기자 penfoot@

### “수완에너지 난방공사나 광주시가 인수해야”

### 수완지구 입주자대표회장... 요금 인하·반환도 요구

광주 수완지구 주민들이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매각과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광주시의 인수를 요구했다.

수완지구 입주자대표회장협의회는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주민 불안감 해소, 적정요금 부과, 복지혜택 신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현실화, 관료 노후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정관리를 받는 모기업 경남기업의 수완에너지 매각 방침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열에너지 사용 선택권이 없는 4만여명 사용자들의 불안감 해소

를 위해 민간기업이 아닌 지역난방공사나 광주시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수완에너지는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가장 비싼 열 요금을 적용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부터 3차례 요금을 인하했지만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징수한 요금 일부 반환도 요구했다.

수완에너지는 2007년 1월 경남기업이 210억원(70%)을 출자해 설립한 집단 에너지 공급업체로, 한국난방공사(29%)와 광주시(1%)가 기타 주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증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